제11강 취미판단의 제3계기: 취미판단에서 고찰되는 목적의 관계(2)

(1교시)

◆ 목적 없는 합목적성

※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살펴본다.

▲ 객관적 측면

- 목적 없는 합목적성을 객관적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 합목적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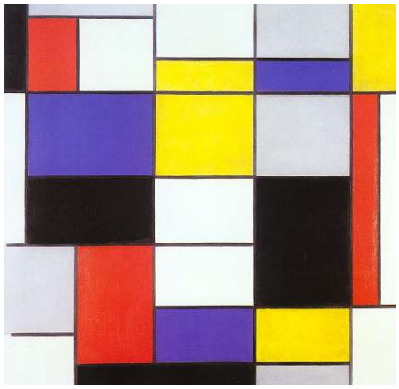
- 형식적 합목적성
  : 인식(판단)의 내용(질료)는 취미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감각적 자극
  ■■ 도덕적 만족

- 대상에서 그 내용이 되는 바에 대해서는 도외시 한다.

※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아니 모든 조형예술에 있어서, 따라서 건축예술과 조경예술에 있어서도 그것이 미적인 예술인 한, 본질적인 것은 도안이다. 그리고 도안에 있어서 취미에 맞는 모든 구도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은 감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을 통해 만족을 주는 것이다."* (p.49)

"...순수한 취미판단의 고유한 대상이 되는 것은 형태의 유희에 있어서는 ***도안****이며, 감감의 유희에 있어서는 합성이다."* (p.50)

▶ 참고자료 I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



작품명: Composition A (1920년, 유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전체(Kompositum; composition)
  : 합성된 전체. 부분과 전체가 상호 조화로운 상태
    ⇒ 취미판단의 대상이 된다.

▲ 주관적 측면

-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와 일치 (상상력+지성)
  = 반성적 일치, 관조

- 생명감의 고양: 반성적 차원에서의 정신적 충족
  ⇒ 도야(Bildung)

▲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와 일치

※ 상상력은 감성에 속한다. ← 감성 ■■ 감관
■■ 상상력

(1) 개인적 차원

- 규정적 판단
  한 개인이 외부로부터 비롯된 근거에 기중해 수동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 주어진 개념과 일치함으로써 합목적성에 이른다. 자유는 없다.

- 반성적 판단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근거해 상상력과 지성을 **자유롭게** 결합시킨다면
  ⇒ 내가 상상하는 것과 내가 개념 규정하는 것이 일치함으로써 합목적성에 이른다.

(2) 사회적 차원

- 공통감, 확장된 마음의 문제

- 규정적 판단
  : 보편이 주어져 있으므로 타인이 생각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자유를 발휘할 여지도 없다.

- 반성적 판단
  : 타인의 지평에서 타인과 일치하려는 방향으로 나의 자유를 발휘한다.
  ⇒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공동체

※ 반성적 판단력의 준칙
  : 나의 생각을 타인의 지평에서 타인의 생각과 합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교시)

◆ 취미판단에서 고찰되는 목적의 관계

※ 앞 시간에 언급된 '아름다운 공동체'에 관해 다시 짧게 알아본 다음,『판단력 비판』(김상현 옮김, 책세상, 2005) p.43, **§12. 취미판단은 선험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부터 p.55, **§16. 대상에 대해 특정한 개념의 조건에 따라 아름답다고 언명하는 취미판단은 순수하지 않다**까지 빠르게 살펴본다.

▲ 아름다운 공동체

- 정의로운 공동체
  : 정의가 미리 주어져 있고 여기에 맞춰 각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맞추어져야 한다.

- 아름다운 공동체
  : 미리 정해진 것은 없고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갖되,
  항상 타인의 지편에서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염두에 두고
  상호 조화를 이루려는 방향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린다.

- 한나 아렌트
  : 칸트미학을 정치철학적으로 해석
  ※『칸트 정치철학 강의』

▶ 참고자료Ⅱ
아렌트 [Hanna Arendt, 1906~1975]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 (국적은 미국)
주요저서: 『폭력의 세기』, 『인간의 조건』

제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흑인인권운동, 1968년 학생운동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20세기를 사상적으로 성찰하게 된 아렌트는 전체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아렌트는 스승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실존주의를 정치이론에 적용하여 현대사회에서 방향성을 잃은 군중들의 '세계상실'을 이야기하였다. 파시즘과 스탈린주의 등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전체주의'에 대한 그녀의 분석은 오늘날까지 인정받고 있으며 '악의 진부성'이란 개념은 나치스의 인종주의적 대학살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몰입-체험의 관점

- 아름다운 것(美)이란?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서)
  a. 주관의 자기 체험(정신)을 객관에 투사한 것
  b. 객관의 합목적성이 주관에 반영된 것이 곧 아름다운 것

    a. → 나의 정신이 자유로우면서 조화로운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b. → a.를 객관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 이전까지는 아름다움(美)가 사물의 성질이라고 여겼지만
  칸트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판단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몰입: 주관과 객관의 일치

"아름다운 것을 관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관조가 관조 그 자체를 강화하고 재생시키기 때문이다." (p.45)

▲ 취미판단과 완전성

- 취미판단은 완전성의 개념과는 무관하다.
  ⇒ 합리론 미학을 비판

- 바움가르텐은 "美는 완전성에 대한 혼란한 표상"이라고 했는데, 칸트는 이를 비판했다.

- 완전성 : 목적 있는 합목적성, 객관적 합목적성
  ↔ 美는 형식적, 주관적 합목적성

▲ 자유미와 종속미

- 자유미(pulchritudo vaga)
  : 개념·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름다움 - 진정한 아름다움

- 종속미(pulchritudo adhaerens)
  : 개념·목적에 의존해서만 아름다움 - 아름다움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3교시)

◆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는 아름다움

※ 『판단력 비판』 p.59, **§17. 미의 이상에 관하여** 부분을 본다.

▲ 미의 이상

- 이상(理想; Ideal) : 이념의 감각적 표상

※ 개념 ■■ 지성개념
■■ 이성개념 = 이념

- 어떤 이념이 감각적으로 표상(현시)된 것들 중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상
그것의 아름다움은 종속미이다.

- 이념
■■ 표준이념: 감각의 평균치 예) 8등신
■■ 경험적 측면에서 미를 구현하기는 하지만
■■ 감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것은 아님.
■■
■■ 이성이념: 진정한 미를 구현

- 자연적인 사물들 중에서 인간 이외에 **아름다움이 이성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종속미를 갖고 있는

- 오직 인간의 아름다움만이 이성이념을 구현한다.
(인간의 인격)
⇒ 인격이 외양으로 드러난다면 미의 이상(종속미)이라고 볼 수 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자연 ----------→ 자유
■■
매개: 아름다움
(판단력 비판)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자연과 자유

- 자연 - (인간의 경우 신체)
  자연적인 메카니즘에 따르는 (자연에 종속된)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 자유 - (도덕성, 인격성)
  행위의 자발성 때문에 도덕성을 자유로 본다.
  ■■-→ 인과의 자발성

  ■■ 소극적 의미 - ~로부터의 자유
  ■■ 적극적 의미 -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
  ※ 절대적 자유 : 존재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자유. 예) 신(神)

  - 인간은 절대적 자유를 갖지는 못하지만 행위와 사고에 대한 자유는 갖는데 이를 '자율'이라고 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